

韓國軍事運營分析 學會誌

第17卷, 第1號, 1991.6.30.

韓國의 環太平洋聯合訓練 參與와 發展方向  
(Korea's Participation in the Rim of the Pacific and  
It's Future Development)

金 顯 基\*

Abstract

Participation of ROK navy in the Rim of the Pacific (RIMPAC) is likely to stimulate rethinking of Korea's defense role in Northeast Asia.

Although the RIMPAC exercise was originally maneuvers to improve combat techniques in ASW, anti-aircraft combat, ocean supply support, surface combat, and electronics warfare, it will be finally be directed to ward securing the SLOC connecting the US, Canada, Australia and the Far East.

Based on this concept, my conclusion is that two future arrangements are pos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rotecting the SLOC in the combined defense of the Pacific.

One is the nav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Japan, the other is the Standing Naval Force Pacific (STANAVFORPAC)

The concepts of the Naval Cooperation between ROK and Japan and the STANAVFORPAC is whose time has come. The leaders, policymakers, and planners of the countries concerned need to consider such a move seriously.

---

\* 國防大學院

## I. 序 論

現代의 國際社會는 相互利害關係가 複雜해졌고 軍事力의 使用機能도 多樣해졌다. 따라서 國家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戰爭도 單獨國家의 戰爭은 거의 생각할 수 없으며, 國家間的 協力次元에서부터 軍事作戰에 이르기까지 國家間的 聯合으로 自國에 有利한 條件을 形成하여 戰爭을 抑制하는 役割을 擔當하거나, 戰爭이 勃發時 戰爭의 目的을 達成하는 手段으로 普遍化됨으로써 現在에도 各國의 安全保障을 NATO, WTO 등과 같은 地域別 集團自衛制度나 혹은 2個國間的 相互防衛條約에 의한 安全保障條約에 依存하고 있다.

韓半島는 地政學的으로 大陸勢力和 海洋勢力의 前哨의 位置에 있으며,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周邊 4強의 利害가 엇갈리고 있어, 戰略的 價値面에서 重要하게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對峙狀況도 周邊4強의 힘의 均衡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의 海洋威脅은 1次的으로 北韓의 海軍力이며, 韓半島의 地政學的 環境을 考慮한 2次的 海洋威脅은 周邊4強의 力學關係에서 波及된 蘇聯의 對北韓 支援 및 協力關係를 包含한 直接, 間接的인 海上封鎖, 海上交通路 破壞行爲도 豫測할

수 있다. 특히, 韓國은 國土分斷으로 말미암아 地理的으로는 海洋國家의 特性을 갖고 있으며, 主要資源에 대한 海外信賴度가 높고, 國際貿易을 위한 交易을 全的으로 海洋에 依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有事時 戰爭遂行能力 維持와 友邦國에 의한 支援確保 側面에 있어서도 海上交通路 防衛는 매우 重要하다.

따라서 韓國은 自主的인 海軍力 增強을 통해 이러한 1次的 海洋威脅에 對備해야 하며, 2次的 海洋威脅에 대해서도 獨自的으로 軍事能力을 갖추어야 하나, 이는 事實上 困難한 問題이다. 그러므로 美國을 비롯한 環太平洋 隣接國家들과 海軍力 協力關係가 必要하며, 이것은 既存의 海軍力 協力關係를 바탕으로 聯合海軍力 構成을 摸索해 보는 것이 現實的으로 可能한 方案이라고 본다.

本 研究書는 聯合海軍力의 概念을 定立한 후 聯合勢力 構成의 有用性을 戰略思想家의 理論을 中心으로 分析하려 한다. 提示된 理論을 基礎로 하여 韓國海軍이 1990년부터 參加한 環太平洋 訓練의 參加 背景 및 意義를 記述하고, 이에 대한 發展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 目的이다.

## II. 聯合海軍力과 發展

### 1. 聯合海軍力의 概要와 變遷

聯合이란 한 國家의 軍과 他國家 軍과 의 協力에 의해서 共同의 目標을 達成 하기 위하여 編成, 組織된 狀態를 말하며, 聯合作戰이란 單一任務을 達成하기 위하여 2個國 이상의 軍隊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作戰이다.<sup>2)</sup>

따라서 合同이 軍間의 協力次元이라고 할 때에 聯合은 國家간의 協力으로서 近代以後 自國에 有利한 條件을 形成하여 戰爭을 抑制하는 役割을 擔當하거나, 戰爭勃發時 戰爭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 普遍化되었다.

一般的으로 海軍力の 概念은 대단히 廣範圍한 概念인 海洋力(sea power)의 下部概念으로 認識되고 있는데, 이는 最初 「마한」(A. T. Mahan)이 使用하였던 海洋力の 概念에 包含되어져 있었으며<sup>3)</sup>, 「골시코프」(S. G. Gorshkov)에 의해서 海洋力の 가장 重要한 構成要素로 強調되었다.<sup>4)</sup>

아울러 獨逸의 「베게네어」(Edward Wegener)提督은 海軍力을 艦隊나 海軍의 戰略的 位置(naval strategic position)의 產物로서 戰爭과 關聯된 것을 意味했으며<sup>5)</sup>, 「라이첼」(Willim Reitzel)은 海洋勢力을 防禦, 支援하는 것으로서 窮極的으로 海軍을 意味한다고 하였다.<sup>6)</sup>

따라서 海軍力(Naval Forces)이란 “國家目標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海洋과 直接 關聯된 軍事力이 總體로서 水上, 水中, 空中 및 上陸戰力 등을 包含한 海洋戰力을 의미”<sup>7)</sup>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實質的 正義(real definition)<sup>8)</sup>를 통해서 聯合海軍力이란 “2개 이상의 國家가 共同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組織한 海洋과 直接 關聯된 海軍力の 總體”로서 定義할 수 있다.

古代에 聯合海軍力이 形成되었던 것은 B.C. 480년 살라미스(Salamis) 海戰에서

註1) 張文錫, 聯合作戰指導에 관한 研究 教授 研究 報告書(서울: 國防大學院, 1987), p.2.

2) J.C.S., *Department of defence Dictionary and Associated Terms*(Washington D.C.: J.C.S., April, 1984), P.76.

3) A.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New York: Hill and Wang, Inc., 1957), P.1.

4) S.G. Gorshkov, *The Sea Power of the State*(New York: Pergamon Press, 1974) 國防大學 譯, 國家의 海洋力(서울: 國防大學院, 1987), PP.14-15.

5) Edward Wegener, "Theory of Naval Strategy in the Nuclear Age," *Naval Institute Proceedings* (May, 1972), P.205.

6) Willim Reitzel, "Mahan on use of the Sea" *Naval War College Review* (May-June, 1973), P.80.

7) 海軍本部, 사관의 등대, (海軍本部, 1988), P.5.

8) 聯合海軍力에 대해서는 海軍用語集(海軍本部, 1964, P.19.)과 合同軍事 用語辭典(合同參謀本部, 1983, P.143)에서 “聯合”의 用語 正義시 例로써 使用하고 있고, 美海軍에서는 “Allied Naval Forces”로 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科學의 研究의 論理(姜信澤, 1987, P.24-30)에 의거 實質的 正義의 方法을 통해 筆者는 聯合海軍이라는 用語를 正義하였다.

부터緣由된다. 에게海와 地中海의 霸權을 把握하여 유럽으로 進出하려는 페르시아에 대해 威脅을 共同으로 認識하고, 그리스의 都市國家들은 聯合海軍力을 構成하여 對抗함으로써 그들의 生存을 確保하고, 地中海의 霸權을 掌握하였던 것이다.

中世에 있어서 代表的인 聯合海軍力 構成은 北海에서의 海賊行爲로부터 都市國家들의 海上交易 保護를 共同目標로 하는 한스(Hanse) 同盟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聯合海軍力의 構成에 관한 歷史的 變遷過程을 考察해 볼 때 다음과 같은 發展勢力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聯合海軍力의 構成目的에서 보면 過去에는 生存維持나 戰爭遂行을 위하여 構成하였으나, 現在에는 이를 包含하여 政治的 利益追求나 戰爭抑制를 위하여 構成됨으로써 政治的 象徴과 防衛力으로써 意味가 提高되고 있다.

둘째, 聯合海軍力의 構成要件은 過去에는 共同威脅이나 共同目標 가운데 한 가지 要件만을 考慮하여 構成함으로써 聯合體制의 持續的인 維持가 困難하였으나, 現代에 있어서는 共同威脅, 相互

協力關係, 共同目標를 前提下에 構成함으로써 聯合體制的 維持와 役割의 分擔이 持續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째, 聯合海軍力의 編成時期면은 過去에는 戰爭發生時 構成함으로써 戰爭初期에 많은 混亂과 戰鬥能力의 非效率性을 招來하였으나, 現代에는 平時에 構成하여 相互運用能力을 向上시키고, 卽應態勢를 維持하고 있다.

## 2. 聯合勢力 構成에 관한 有用性

古代戰爭思想의 嚆矢인 孫子兵法 “謀攻” 編에는 “戰爭에 있어서 最上의 方策은 敵의 計謀(作戰計劃)를 간과하여 그것을 미연에 挫折시키는 것이며, 次善의 方策은 敵國과 第三國과의 同盟 내지는 友邦關係를 저해하여 敵을 獨立無援의 狀態에 빠지게 하는 것”에 主眼을 둌으로써 戰爭抑制와 戰爭勃發時 同盟國의 支援役割을 강조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敵을 타도하기 위한 條件으로써 敵國의 重心을 攻擊하고, 敵의 중요한 同盟者가 敵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 同盟者에게 먼저 攻擊을 가한다”라고 함으로써 戰爭에 있어서 同盟國의 役割을 강조하는 한편 “어느 國家가

註9) 車俊會 編, 古代戰爭論(서울: 大旺社, 1982), P.63.

10) Carl Von Clausewitz, On War, Trans. Michael Howard & Peter(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596.

他國의 危機를 구하기 위해 支援을 한다고 하여도 他國의 危機에 대해서는 自國의 危機처럼 熱意를 갖지 못하며, 다소간의 支援軍을 派遣하더라도 그 支援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면 支援國의 役割終了을 구실로 하여 難局에서 무사히 벗어날 궁리를 하게된다”<sup>11)</sup> 라고 하면서 一方的의 支援關係의 同盟에 대한 脆弱性을 지적하였다.

조미니 (Baron De Jomini)는 “戰爭에 있어서 다른 모든 條件이 대등하다면 同盟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弱少國이 同盟을 맺어 對抗할지라고 한 強大國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각 同盟國들은 분리되어 있는 國家들 보다는 강력한 것이다. 同盟國은 部隊의 分遣隊를 제공해 주고, 平時에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敵國의 國境線 一部를 威脅받게 함으로써 심각한 정도의 苦痛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다”<sup>12)</sup> 라고 함으로써 戰·平時 弱小國에서의 同盟國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보프르 (Andre Beaufre)는 核 攻擊에서부터 休戰協定에 이르기까지 강

력한 聯合國 政府를 통해 적에게 壓力을 가하는 방법이 적절한 戰略的 手段이 될 수 있으며, 敵對者間의 辯證法的 鬭爭이 國際舞臺로 확산될 때에는 聯合國에 의한 壓力이 결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獨逸은 이러한 점을 理解하지 못한 결고로 兩次大戰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이다.<sup>13)</sup>

한편 퀸시 라이트 (Quincy Wright)는 弱小國들이 強大國으로부터 自身을 防禦하기 위한 同盟이나 地域聯合은 勢力均衡을 유지하기 위한 典型的인 方法이며, 특정한 危機에 직면하거나 특정한 戰爭을 수행하기 위한 特別同盟은 勢力均衡體制의 永續化에 유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up>14)</sup>

이외에도 <버크> (Arleigh Burke)는 集團安保協定이 共同戰略概念의 發展, 共同計劃의 公表, 共同行動의 基盤提供, 共同의 政策樹立등을 促進시키는 役割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役割을 통하여 友好 理解 등의 無形的인 利益과 機動空間, 基地, 通過飛行權, 情報支援 등과 같은 물리적 利益을 획득할 수 있음으로써 集團安保는 계속 중요한 役割을 수행할

註11) Ibid., P. 603.

12) Baron De Jomini, *Art of War*, trans. C. H. Mendell & W. P. Craighill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Co., 1962), 國防大學院 譯, 조미니의 戰爭術 (서울: 國防大學院, 1987), P. 14.

13) Andre Beaufre, *An Introduction to Strategy*, trans. Frederick A. Praeger (New-York: N. Y., 1966) 國防大學院 譯, 戰略論, 安保叢書 第3卷 (서울: 國防大學院, 1975), PP. 28-30.

14)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陸軍本部 譯, 戰爭研究, 兵書 研究 第7輯 (陸軍本部, 1979), PP. 122.

것이라는 展望을 하고 있다.<sup>15)</sup>

〈홍고 다께시〉〈本郷 建〉는 聯合 戰爭에서 聯合된 國家의 戰爭努力에 의해 戰爭圈의 확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敵의 戰力을 분산시키고 최후의 一擊을 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6)</sup> 또한 〈라이더〉〈Julian Lider〉는 “政治, 軍事同盟은 戰時에 결성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平時에도 중요한데, 이는 광범위한 政治, 軍事目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事實이 인정되고 있다. 즉 戰爭防止를 위한 政策提携의 道具로써, 그리고 抑制가 실패할 경우에는 聯合된 努力으로 戰爭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同盟은 政治目標(利益獲得, 防衛, 戰爭抑制) 등을 위해서 결성하게 된다<sup>17)</sup>”라고 함으로써 同盟을 통하여 國家利益을 획득하고 戰爭을 抑制하며, 戰爭遂行能力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海洋同盟體 형성에 관해서 〈클라인〉(Ray S. Cline)은 海洋平和維持를 위한 大洋同盟의 構築은 정치적으로 地域安定의 效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海洋貿易國의 통합된 힘은 非友好的인 國家의 一方的인 妥協이나 공공연한 侵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同盟體 結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써는 海上交通路의 連結, 戰略的 位置의 重要性, 民主政治體制 및 自由經濟體制 등을 들면서 加盟國은 集團防衛를 위한 役割을 분담해야 함을 제시하였다.<sup>18)</sup> 또한 〈크로〉(W. J. Crowe) 美國戰略의 綜合的 構造는 海洋勢力에 重心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勢力은 〈유럽〉 및 〈아시아〉에 있는 同盟國들과 遠距離를 극복할 수 있으며, 蘇聯勢力의 優勢를 상쇄하고, 同盟國들과 經濟的 結束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으로 美國은 有事時 이 勢力을 통하여 敵의 脆弱點을 攻擊하고 敵의 同盟國을 분리시키며, 그 반대로 危機에 처해 있는 美國의 同盟國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sup>19)</sup> 同盟國과 海洋勢力의 相關的 重要性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브라운〉(Harold Brown)은 2개소에서 발생된 在來式 偶發戰爭에 대처시에는

註15) John M. Collins, *Grand Strategy*(Annapolis, Maryland : Naval Institute Press, 1973), 國防大學院 譯, 大戰略論, 安保叢書 第13卷(서울 : 國防大學院, 1979), PP.245-262.

16) 本郷 建, 戰爭 哲學, 國防大學院 譯, 參考書誌, (서울 : 國防大學院, 1982), PP.491-492.

17)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Aldershot : Gower Publishing Co., 1983), 國防大學院 譯, 軍事理論, 參考書誌(서울 : 국방대학원, 1985), PP.74-77.

18) 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and U. S. Foreign Policy for the 1980*(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80), 國防大學院 譯, 國力分析論, 安保叢書 第28卷(서울 : 國防大學院, 1981), PP.187-191.

19) *Strategy : A Reader, op. cit.*, PP.165-166.

同盟國과 協力하였을 때 同時對處가 가능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兵力의 前進配置는 同盟國에 의존함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지적했다.<sup>20)</sup>

이와 같은 政治, 戰略家들의 見解를 考察해 볼 때 聯合勢力의 構成에 관한 有用性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政治的 側面으로써 聯合勢力을 構成한 脆弱國은 강력한 同盟國을 통하여 敵國에게 간접적인 壓力을 가하고, 강력한 敵國의 一方的인 妥協이나 威脅으로부터 不利益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強大國은 勢力均衡을 유지할 수 있으며, 政治的 利益追求를 위한 紛爭에 개입할 수 있는 機會를 확보하게 되고 同盟國의 戰略的 價値를 共有할 수 있다. 이 밖에 同盟國 相互間에 共同行動의 基盤을 조성하고, 共同的 計劃이나 政策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軍事的 側面으로써 前進基地 및 早期警報의 獲得, 遠距離 作戰能力의 向上, 機動空間 및 通過飛行權의 確保, 同時多發性 紛爭의 對處能力向上, 戰爭地域의 擴散 및 移動, 防衛役割 分擔 등의 利點을 추구함으로써 軍事力의 使用機能을 활성화시켜 戰爭遂行能力 및 戰爭抑制力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經濟的 側面으로써 資源의 制限

註20) Ibid., P.117.

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遠距離 作戰의 效率性을 제고시키고, 防衛負擔을 감소시키는 한편 相互補完의이고 依存的인 經濟體制의 維持가 가능하다.

이러한 聯合海軍力 構成의 有用性을 基礎로 하여 韓國海軍이 참여한 環太平洋 海軍 聯合機動訓練에 대한 參加背景과 意義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發展方向을 제시하려 한다.

### Ⅲ. 環太平洋 聯合訓練(RIMPAC '90)의 參加 背景과 意義

環太平洋 聯合訓練(RIMPAC: Rim of the Pacific)은 有事時 太平洋上 重要 海上 交通路의 安全 確保를 위하여 沿岸國 間에 聯合作戰 能力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 關係를 增進할 目的으로 美海軍 主 관하에 71년도부터 2년에 1회씩 太平洋 上에서 실시해온 海上聯合機動訓練이다.

주로 參加해 온 국가는 美國, 캐나다, 濠洲, 日本 등이며 海洋 선진국들은 訓練을 통하여 最新 海軍作戰 戰技를 개발하여 왔다. 최초에는 美國, 캐나다, 濠洲 등이 參加 실시하였으며 1980년도에 參觀團을 派遣한 바 있으며 RIMPAC '90에 최초로 參加하게 되었다.

<表1 參照>

表1 : RIMPAC '90 訓練計劃

區 分	內 容
期 間	1990. 4. 2 - 5. 21
場 所	南部 캘리포니아-中部 太平洋/ 하와이 一 帶
參 加 國	미국, 캐나다, 濠洲, 韓國, 日本
訓練目的	· 聯合/合同作戰 遂行能力 培養 · 新 戰術 作戰節次 發展, 補完
韓國參加計劃	· 韓國型 驅逐艦 2隻 · 對艦, 對潛戰을 포함한 機動訓練 · 實彈 射擊訓練과 裝備 性能檢査

### 1. 韓國의 參加決定 背景과 意義

韓國의 RIMPAC 참여는 1982년 10월 韓美 海軍參謀總長間的 訓練 參觀문제를 論議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988년 7월 최초로 訓練에 參觀하면서 본격적인 韓國海軍의 參加문제 가 論議되어 1989. 9월에 訓練 參加를 發表하게 되었다. RIMPAC 訓練의 參加 決定의 背景은 첫째, 貿易量의 증가로 인한 海上交通路 安全確保의 重要性이 擡頭되었고, 둘째, 安保 威脅要因의 증가로 韓美 軍事協力 체제의 강화 必要性이 擡頭, 셋째, 88올림픽 이후 韓國의 국제적 地位向上과 太平洋時代의 도래에 대한 준비, 셋째, 海軍의 技術교리 발전등의 軍事的 성과예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太平洋 沿岸 國과의 政治, 外交, 安保, 經濟的 紐帶強化가 韓國安保에 緊要하기 때문이다.

參加 意義면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概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韓半島 安保 威脅要素에 對應하는 것이다. 최근 제 4 땅굴 발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 김일성이나 同調勢力이 “北韓은 南侵略 意思도 能力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北韓은 武力 赤化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89년 6월말 현재 總 104만의 常備兵力을 保有하고 이중 약 60% 이상을 休戰線 부근에 配置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554만 이상의 豫備 兵力을 유지하고 있으며 戰車를 비롯한 각종 裝備 編制를 補強함으로써 현재 재배치 없이 奇襲 南侵을 감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연이은 平和攻勢와 감군 발언에도 불구하고 極東의 兵力과 核武器를 '77년이래 그대로 견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상당 부분은 오히려 增強되었음을 볼때 對 北韓의 支援 能力이 強化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狀況을 綜合 評價한다면 韓國은 압도적인 軍事力의 威脅下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有事時에 對備한 戰術 戰技의 鍊磨는 國家와 國民을 保衛해야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기본적 任務일 것이다.

둘째, 強力한 韓·美 聯合 防衛體制의 必要性 증대이다.

南·北韓의 현 상황은 '53년 休戰이후



대규모 군사충돌은 없었지만 不安定한 休戰線을 境界로 對峙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平和 裝置가 없는 상황에서 美國의 강력한 힘을 背景으로한 聯合戰略으로 겨우 팽창 세력균형을 이루어 緊張속의 平和를 維持하고 있는 상태이다. 勢力均衡이 瓦解될 경우에 北韓 당국자들의 戰爭挑發 慾求를 억제한다는 것은 “토끼가 호랑이를 물어 죽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며 韓半島에 恒久的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는 制度的 장치 마련될 때까지는 강력한 防衛力을 필요로 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韓·美 聯合 防衛 체제에 基礎한 美國의 증원 戰力과 韓美간의 軍事的 結束뿐일 것이다. 聯合訓練은 聯合作戰體制의 효율성을 測定하는 바로미터가 될 뿐 아니라 연합군 상호간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捷徑이다.

셋째, 戰, 平時 海上交通路 安全 確保의 重要性이다.

國內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약 575,000 배럴의 기름공급을 모두 海上 輸送에 依存하는 것을 비롯하여 1988년 한해만 해도 약 26만 3천척의 각종 艦船이 韓國의 港口를 出入하였으며 貿易量의 99%가 海上을 통해 運送되고 있다.

韓國戰爭 당시 연인원 100만명을 넘는 參戰 16개국의 증원병력의 99%가 海上輸

送路를 통해 釜山港으로 入港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韓國에 戰爭이 勃發할 경우 韓·美 相互 防衛 條約을 基礎로 增員될 美 海兵兵力과 裝備物資는 空軍의 일부와 緊急空輸 特전부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海上 輸送路를 이용하여 한국 지역으로 展開토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平時 경제와 戰時 生存의 문제가 전적으로 海上 交通路에 달려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海上交通路의 安全確保야 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至上的 課題하고 하겠음.

마지막으로, 太平洋 時代의 主導的 役割者의 必要性이다.

미국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를 비롯한 세계의 有數한 未來 學者들은 20世紀 중반이후 國際政治 中心이 서구 유럽에서 太平洋 지역으로 점차 이동, 21世紀에 접어들면서 太平洋 時代가 도래할 것으로 豫見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太平洋 沿岸에 접해있는 韓國의 地政學的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는 국가 발전의 原動力을 무한의 潛在力을 내포하고 있는 大洋으로부터 획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사 이래 現代에 이르기까지 海洋力의 중요성은 제론할 여지가 없거니와 交通, 通信媒體의 발달로 國際貿易이 활발해지고 무역량의 크기가 국력의 尺度가

될수 있는 오늘날 海上交通路의 확보는 곧 국가발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海上交通路 確保를 위한 강대국의 尖銳한 對立이 太平洋上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歴史的으로 볼때 강대국의 對立에서 傍觀者的 立場을 堅持하거나 名分에만 연연한 경우는 결코 국익에 아무런 보탬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최근 日本 기이후 總理가 士官學校 卒業式에서 自衛隊의 增強을 역설한 점등을 감안해 볼때 앞으로 日本의 軍事力 증대 및 지역 役割 확대등을 豫見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상황에 비추어 볼때 한국도 걱정 範圍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주권국가로서의 政治, 軍事的 自主性を 유지할 수 없다. 韓國은 바로 이러한 周邊情勢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太平洋沿岸國의 主導的인 調整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국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美國을 위시한 캐나다, 濠洲 등 太平洋 沿岸國과의 相互 協力關係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政治, 外交 軍事的 次元에서 동반자적 위치에서 지역 방위의 분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立地를 確立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訓練에 參加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否定的

側面을 지적한다면

첫째, 北方外交 및 對北 政策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둘째, 東北亞 諸國과의 外交에 불편한 관계 조성 및 국민의 대일 감정 자극 가능성, 세째, 訓練 參加를 基點으로 방위비분담 증가 가능성 등이라 할 수 있음 등이다. 訓練의 參加가 蘇聯을 비롯한 中國, 기타 동구 제국과 北韓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經濟, 社會, 文化 기타 제반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려는 정부의 북방政策에 다소 否定的的影響을 줄 가능성을 전적으로 排除할 수 만은 없을 것이나 訓練 地域 자체는 물론, 訓練 내용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오늘날 國際政勢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急變하는 불확실성의 선상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보호를 위한 安保力量의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認識하여야 한다.

세계의 中心이 太平洋 上으로 移動함에 따라 蘇聯도 太平洋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며 이를 위한 前進 기지로서 極東艦隊의 海軍力 강화를 도모해 온 蘇聯으로서는 太平洋 沿岸의 自由 友邦國들에 의한 聯合/合同訓練이 달가울리는 없겠으나 71년이후 계속 되어온 이 훈련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蘇聯이 韓國이

참가한다고 해서 만약에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北韓을 意識한 제스처에 불과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北方政策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美·蘇 강대국의 軍縮會議과 탈 이념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副應하여 우리 정부에서도 對 共產圈 관계개선과 南北韓 軍事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北方政策을 追求하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평화와 和解의 霧圈氣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으나 世界各國은 이념 대신에 自國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2차대전후 退潮하였던 民族 國家의 특성이 復活되고 있어 각 국가간의 競爭은 그 어느때보다도 熾熱해지고 있어 國家安保의 중요성은 지난 역사에 비추어볼때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가이후 總理도 이 점을 看破하여 비록 美·蘇 軍縮協商에 따라 蘇聯의 軍事力이 약화된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蘇聯은 엄청난 軍事力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日本 防衛力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가 인식하여야 할 점은 우리의 北方 外交와 남북대화 政策이 우리의 확고한 防衛態勢와 國力의 伸張 하에서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蘇聯을 비롯한 동구권의 변화가 사

회주의 경제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동독의 베를린 장벽 撤廢 또한 서독의 확고한 방위 태세와 國力의 신장에 기인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록 蘇聯, 中國등이 우리와의 교류 및 협력 대상국가이며, 北韓이 함께 살아가야 할 民族 共同體 임에는 틀림이 없고 동구권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는 있으나 中國등은 아직 우리와 正式 國交 관계를 樹立하지 않고 여전히 北韓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北韓은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安保를 위협하는 적성국가로 남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北方政策이나 南北韓 緊張緩和 노력과 並行하여 太平洋상의 海上交通路를 확보하고 우리의 安保를 확실히 保障하기 위하여 韓·美 군사 협력 관계를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의 友好·協力 관계를 維持, 發展시켜 나가야 하며 環太平洋訓練의 參加도 이러한 次元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IV. RIMPAC의 發展方向

美國 및 友邦國들은 이 地域의 廣域性이나 蘇聯의 軍事能力을 考慮하여 防衛 協力を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사시 이

地域의 海上交通路 保護를 위해 韓國은 海上聯合訓練(RIMPAC)을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의 聯合訓練體制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다 具體化되어 聯合海軍力を 구성하는 것으로 發展되어야 한다.

첫째, 1980년 이후에 蘇聯은 太平洋艦隊의 勢力增強의 前進基地의 保護 등으로 「아시아」, 太平洋 地域에 대하여 影響力 行使는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 地域의 廣域성과 蘇聯의 作戰能力을 考慮할 때 어느 國家도 獨自의인 대응은 非效率의 이라는 점과, 또한 이에 對應하기 위한 友邦國들의 平時 編成된 聯合海軍力の 存在는 全無하다는 점.

둘째, 美國은 財政 및 貿易赤字로 말미암아 地域防衛에 있어서 全的인 역할이 困難하게 되었으며, 日本을 비롯한 이 地域의 友邦國들은 共感하고 있다는 점.

셋째, 유사시 聯合防衛를 수행하기 위한 美國의 支援은 당시의 政治的 狀況과 戰場環境에 따라 規模와 手段이 制限될 수 있다는 점.

넷째, 奇襲, 短期 決戰의 戰爭 樣相으로 戰爭初期에 決定的인 狀況이 展開될 경우 同盟國은 막대한 損失을 前提下에

支援을 해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한 波及 效果로서 敵對國에게 유리한 協商의 位置를 提供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聯合海軍力 構成의 必要성과 韓國의 RIMPAC 참여는 長期的으로 韓·美, 日 海軍協力 體制와 太平洋 常設 聯合海軍部隊(Standing Naval Force Pacific; STANAVFORPAC)로 發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美·日 海軍協力の 可能性과 方法에<sup>21)</sup> 대해서는 論者가 이미 研究 發表된 論文을 參考하고, 여기서는 太平洋 常設 聯合海軍部隊의 發展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大西洋 常設 聯合海軍部隊의 創設은 1960年代 中盤부터 蘇聯의 海軍力이 迅速하게 增強되자 이것에 對處하는 方案의 一環으로 NATO에서는 1968년 1月 英國의 포츠머스에 司令部를 設置한 大西洋 常設 聯合海軍部隊(Standing Naval Force Atlantic : STANAVFORANT)를 創設하였다.<sup>22)</sup>

最初 創設 當時에는 英國, 美國,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4개국이 한 척의 후리 킷함을 着出하여 構成되었으나 現在는 美國, 英國, 캐나다, 獨逸, 네덜란드 등

註21) Steen K. Jessen, "Standing Naval Force Pacific?" US, Naval Proceedings, March 1986, PP.84-87.

22) 金顯基, "韓·日 海軍協力の 可能性과 周邊國에 미치는 影響," 韓國軍事運營分析 學會誌, Vol. 16, No.1, 1990.6, PP.35-55.

이 護衛 驅逐艦 5~7척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벨지움 등 國家가 輪番制로 各種 訓練에 參加하고 있으며, NATO 海軍 組織의 隸下 部隊로 運營되면서 危機 및 紛爭時에는 그 艦艇 勢力을 增強시키는 計劃이 수립되어 있다.

STANVFORANT의 任務<sup>23)</sup>은 NATO 海軍力 顯示를 持續적으로 提供하고, 平時에 卽刻적이고 有用한 抑制的 海軍力을 提供하며, 보다 強力한 國際的인 海軍力을 構築하기 위한 核戰力을 形成하고, 마지막으로 多國籍 作戰 能力 向上을 통하러 NATO의 力量을 改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任務代行을 위하여 各 護衛驅逐艦에는 2대의 「헬리콥터」를 搭載하여 電子戰, 對潛戰, 對空警戒作戰을 수행하며 電算화된 對潛裝備와 適正水準의 對艦, 對空裝備를 保有하고 年間 約 190日의 海上作戰을 통해 50,000NM의 海上警戒을 擔當함으로써 聯合된 總合勢力의 象徴的 役割과 潛在的 膺懲力의 役割을 하고 있다.<sup>24)</sup>

이에 더하여 STANAVFORLANT는 NATO 海軍의 相互運用能力을 向上시키고, NATO의 一體感과 安全保障에 대한 共同目標을 誇示하며, 特定 同盟國에 대한 敵對行爲는 全體 同盟國에 대한 敵對行爲로 看做됨을 暗示하고, 前進戰略 (Forward-Strategy)과 「노르웨이」의 北部海岸 防衛에 대한 「유럽」의 支持를 誇示함으로써 抑制力을 維持하며, NATO의 機動打擊隊 (Strike Fleet)와 聯合訓練 機會를 增進시키는데 그 有用성이 있다는 것이다.<sup>25)</sup>

또한 NATO海岸은 北大西洋에서의 蘇聯의 威脅 또는 共產主義 威脅에 效果的으로 對處하여 安定과 平和를 維持하였을 뿐 아니라, <圖1>과 같이 例外的으로 有利한 戰略要衝地를 占有하여 蘇聯의 海上 勢力을 包圍하고 있으며, 「발틱」과 黑海로부터의 出口을 把握함으로써,<sup>26)</sup> 戰爭을 抑制하는 戰略軍의 役割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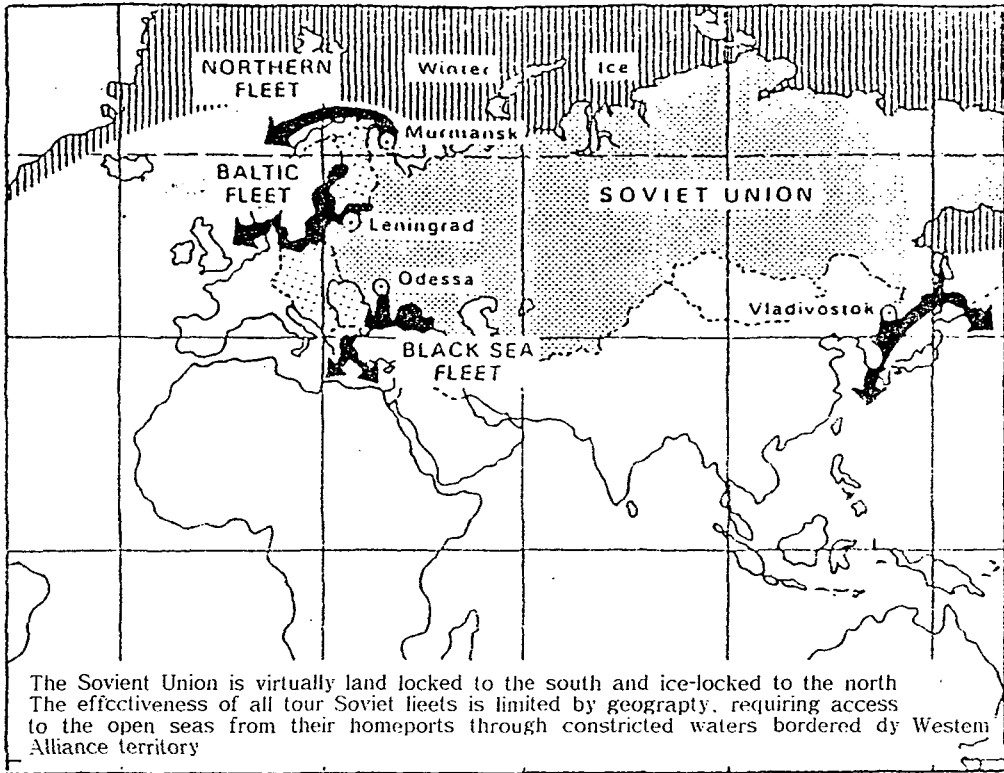
STANAVFORLANT의 創設 以後 成功的으로 任務를 遂行해 왔다. 創設 以後 85,000名의 海軍將校가 聯合訓練에 參加

註23) Steen K. Jessen, op. cit., PP.84-85.

24) D. G. Meyer, "NATO's Fleet: A Symbol with Teeth Behind It,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Dec. 1985), P. 62.

25) Geoffrey Till & Richard Kings, "A Standing Naval Forces for Northern Waters?", Naval Forces (No. V, 1987), P. 17.

26) S. G. Gorshkov, Sea Power of the State, 國防大學院 譯, 國家의 海洋力 (서울: 國防大學院, 1987), P. 210.



資料 : Paul H. Nitze & Leonard Sullivan, op.cit., PP. 61.

〈圖1〉 NATO 海軍에 의한 蘇聯艦隊의 封鎖狀態

했었고, 海洋 55,000마일의 航海를 통해 NATO의 海洋力 保護에 團結力을 보여 왔다.

이러한 論理的 概念이 同一하며 太平洋에 適應하여 太平洋常設聯合海軍部隊 (Standing Naval Force Pacific; STANAVFORPAC)을 創設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部隊의 創設은 STANAVFORLANT의 任務와 類似한 役割을 擔當하는, 美海軍을 主軸으로 하는 聯合海軍力을 構成하여 西太平洋에서의 持續的인

海軍力 顯示를 提供하고, 平時에 卽刻의 海軍力을 抑制力으로 使用할 수 있으며, 太平洋 沿岸國家의 海軍能力을 向上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할 수 있다.

STANAVFORPAC의 參加國은 RIMPAC 參加國을 主軸으로한 韓國, 美國, 日本, 濠洲, 캐나다 등 5個國을 主力으로 하여 周邊國을 漸次的으로 吸收해 나가는 편이 既存 RIMPAC 體制를 發展시키는 데 政治的, 軍事的 制約을 減少시킬 수 있을 것이다.

太平洋常設聯合海軍部隊의 地位體系는

STANAVFORLANT와 마찬가지로 9個月單位 혹은 1年單位로 5個國이 운번제를 實施하는 方案이 適切할 것이다. STANAVFORPAC의 作戰地域은 韓國과 日本 그리고 호주를 連結하는 西太平洋一帶를 考慮해야만 할 것이다. 이 作戰地域 內에서 東海, 지나海, 필리핀 海, 말라카해협 등과 이들의 接近路 海域에서 印度洋과 太平洋으로의 海上 交通路의 保護에 重點을 둘 수 있다.

最初의 聯合海軍力 構成을 作戰 可能한 最小한의 艦艇과 組織을 가지고 出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聯合海軍力을 運用하는데서 생기는 政治的 經濟的 問題에 있어서 美國과 日本의 協助가 重要한 問題로 대두될 것이다.

韓國海軍의 경우 大洋作戰이 可能한 大型艦艇의 건조가 필요하고, 아니면 美國으로부터의 支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派生되는 여러가지 問題點은 實際적으로 STANAVFORPAC을 構成, 運用할때 생기는 豫想 可能한 잇점에 비해서 費用이 아주 적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韓半島 周邊地域과 太平洋時代에서 韓國이 指向하는 先進國으로의 跳躍을 위

해서는 美國을 正점으로 하는 韓·日 海軍協力體制 혹은 太平洋常設聯合海軍部隊의 創設이 필요하고, 또 可能한 視點에 왔다고 본다.

國家 高位政策 決定者, 企劃이 그리고 軍指揮官들은 2000年代를 내다보는 쿠되이(Coup d'oeil)<sup>27</sup>를 가지고 좀더 慎重한 考慮가 필요한 視點에 있다.

## V. 結 論

지금까지 過去의 聯合海軍力은 本質的으로 特定 國家가 海洋安保를 위하여 他國의 海軍力에 依存하거나 혹은 特定한 海洋強國이 제한적인 介入의 手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構成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地域防衛體制나 集團防衛體制의 發展과 더불어 海洋의 廣域性으로 말미암아 海洋防衛는 一國의 海軍力으로 擔當하는 것이 困難하고, 海洋에는 多數의 國家가 依存한다는 事實이 主要한 構成背景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聯合海軍力의 構成에 관한 概念은 特定國家의 海洋防衛를 他國의 海軍力에 全적으로 依存한다는 것이 아니라 特定한 國家들이 安保目的上 直面

註27) 李鐘學 譯, 戰爭論(서울: 一朝閣, 1981), PP. 48-49.

쿠되이(Coup d'oeil)라는 意味는 보통 일반인의 精神的 眼力으로는 보이지 않거나 혹은 長時間의 觀察과 熟考끝에 겨우 찾을 수 있는 眞理를 신속하고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하고 있는 海域에 대하여 共同防衛에 同 參함으로써 適正한 任務를 遂行하고, 이를 통하여 相對的인 友邦國의 支援을 確信함으로써 國防費의 制限性을 克服하고 海洋防衛를 이룩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環太平洋地域에서의 聯合海軍力 構成은 參加國들이 適正規模의 海軍力을 提供하고 防衛能力 및 其他 與件에 따라서 前進基地, 軍需支援, C'I 등의 支援에 대한 參與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脈絡으로부터 提起된 問題에 대한 結論은 다음과 같이 要約되어 진다.

첫째, 聯合海軍力의 構成은 依存하는 海洋威脅을 共感하고, 海洋을 통한 政治, 經濟的 相互協力 關係가 形成되어 威脅에 대한 利益保護의 側面에서 共同目標가 設定될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過去의 戰史를 통해 볼때 위의 3가지 要件中 어느 한 要件이 強하게 作用할 境遇에 聯合海軍力의 構成은 可能하였고, 오늘날에는 國家間的 經濟協力이 國家安全保障의 두가지 軸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勘案해 볼때 위의 構成要件에 適合할 때에는 聯合海軍力의 構成은 可能할 뿐만 아니라 體制의 持續的인 維持와 役割의 側面에서도 效率性이 賦與된다.

둘째, 聯合海軍의 構成은 平時에 이루어져야 하며, 持續的인 聯合訓練을 통하여 相互運用能力을 向上시켜야 한다. 戰時에 構成을 前提로 하는 聯合海軍力은 目標設定과 相互運用能力이 遲延되고 低下되어 戰爭 初期에 對應能力이 微弱하며 政治的 象徴으로써의 意味가 強하기 때문에 戰爭 抑制의 役割이 不足해진다.

특히 現代戰의 樣相이 勝利의 追求에서 利益의 追求로 轉換되었고, 武器體系의 發展으로 初戰의 重要性이 增大되었음을 勘案해 볼때 平時構成은 絶對적으로 重要하다. 예컨대 제1차 世界大戰時에는 展開 3年 後에 正常的인 聯合作戰이 實施되어 1年만에 戰爭이 終結되었으나 武器體系가 더욱 發展하고 戰爭樣相이 複雜하였던 제2차 世界大戰時에는 開戰 3年 後에 正常的인 聯合作戰이 實施됨으로써 戰爭終結까지는 3년이 所要되었다. 따라서 NATO는 이러한 戰時 構成의 問題點들을 克服하고 戰爭抑制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平時에 "STANAVFORLANT"를 構成, 運營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論議를 바탕으로 環太平洋地域의 戰略 環境을 分析하면 우선 環太平洋地域에 있어서 友邦國들의 戰略的 價值追求는 蘇聯을 共通分母로 하는 威脅을 받는다. 또한 어떤 國家도 一國의 能力만으로 이러한 威脅에 대처할 수 없



으나, 環太平洋地域의 友邦國들은 普遍的으로 聯合海軍力의 構成要件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때 이 지역의 海上交通路에 死活的 利益을 賦與하고 있는 友邦國들에 있어서 聯合海軍力의 構成은 既存의 政治, 經濟的 協力關係를 持續적으로 維持하며, 國防資源의 制限性을 克服하고 地域決定을 위한 現實的인 防衛政策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넷째, 이 地域에 있어서 聯合海軍力의 構成範圍는 美國을 主軸으로 하는 韓·美·日 海軍協力體系와 RIMPAC에 參與하고 있는 韓, 美, 日, 濠洲, 캐나다 등 5個國을 主軸으로 하는 STANAVFORPAC 體系이다. 參加國의 具備條件을 갖추고 있는 ASEAN 國家들을 漸次的으로 參加시켜야 한다. 이미 RIMPAC을 통하여 太平洋地域의 海上交通路 防衛를 위한 聯合訓練을 이미 實施하고 있고, 戰略的 位置와 防衛力을 相互依存的으로 結合시킴으로써 聯合海軍力의 構成이 容易할 뿐만 아니라 相互運用能力도 比較的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ASEAN國家들을 參加國에서 除外시키면 友邦國들은 「인도차이나」半島 周邊地域에 대해 戰略的 價値追求가 困難해질 수 있으며, 既存의 經濟的인 相互協力關係를 惡化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經濟力, 軍事能力, 戰略的 價値

등을 考慮하여 漸次的으로 參加範圍를 擴大시킴으로써 이들의 一時的인 經濟的 負擔을 減少시키고 友邦國들의 持續的인 戰略的 價値追求를 可能하게 해야 한다.

끝으로 韓國은 이러한 海軍協力 方案에 積極的으로 同參해야 한다. 現在 韓國에 있어서 威脅의 實體는 蘇聯의 直接, 間接的인 支援을 바탕으로한 北韓의 挑發行爲로 評價할 수 있는데 北, 蘇는 持續的으로 軍事協力關係를 密着시키고 있다. 즉 北韓은 蘇聯에게 前進基地를 提供하고, 蘇聯의 新銳攻擊武器는 北韓에게 移轉되는 한편 北, 蘇 聯合訓練이 強化되고 있음을 考慮할 때 韓國의 國防政策은 自主國防과 聯合防衛의 2次元的인 防衛政策을 樹立해야 하기 때문이다.

友邦國들의 入場에서도 韓國의 同參은 絶對的이다. 한반도는 友邦國들의 戰略的인 價値를 保障하며, 友邦國들은 이를 바탕으로 地域安定을 維持하고 있다. 즉 友邦國들이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를 喪失하게 되면 일본은 海上武力投射와 航空機를 包含한 陸上으로부터의 長距離攻擊에 完全히 露出되며, 中國은 孤立되고, 美國의 前進防衛는 失敗하거나 大量의 勢力補強을 요구하게 되는 한편 廣大한 太平洋地域에서의 相對的인 防衛地域의 增加는 防衛의 效率性을 減少시키고, 危險負擔率을 增加시켜 이 地域에 位置

한 友邦國들은 致命的인 威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때 韓國 및 友邦國들은 持續的인 相互協議를 통하여 聯合海軍力の 構成을 論議하고, 이를 構成時 波及되는 諸般 問題點을 解決하기 爲하 努力을 해야 하는데, 最新 造成되고 있는 環太平洋 體制의 構成에 관한 各國의 外交的 努力은 이 地域에서 聯合海軍力の 構成에 관한 展望을 밝게 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은 이를 爲해 適正規模의 海軍力을 建設하고, 海上武器體系가 所要提起서부터 獲得까지 長期化됨을 考慮한 海洋戰略의 樹立이 要望된다.